버려진 하수처리장 문화와 자연을 입다

TO MEET ORI - DEUL

대지위치 |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5 일대
대지면적 | 37,877 ㎡
건축면적 | 4,861 ㎡
연 면 적 | 8,095 ㎡
규 모 | 최대 3층 (약 13M)
건 폐 율 | 12.8 % (용도 규제 - 20% 이하)
용 적 률 | 21.3 % (용도 규제 - 100% 이하)

구미동에 위치한 탄천수변. 이곳은 하천을 따라 배치된 산책로로 사람들은 걷고, 이야기하고, 즐긴다.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쉼터의 역할을 하고있다. 하지만 가려진 언덕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기능을 잃은 채 버려져 있다.

하수처리장의 장소성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하여 주변 공간과 어울리면서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.

김영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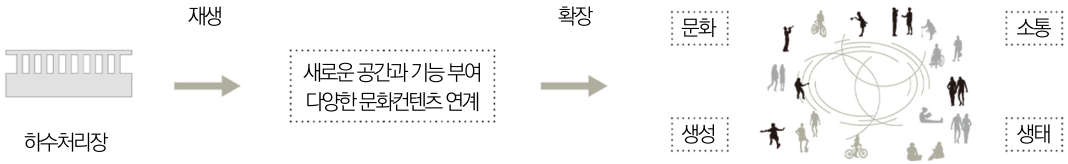
KIM YEONG JIN

안녕하세요? 16학번 김영진입니다. 오랜 시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드디어 졸업이란 걸 하게 되네요. 뭔가 아쉬우면서도 홀가분하고 앞으로의 생활도 기대됩니다.

I SITE PLA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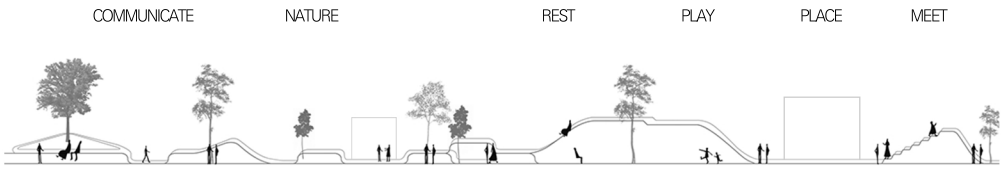
1 주차장
2 소극장동
3 풋살장
4 수공간
5 진입분수
6 공원진입구
7 갤러리
8 도서관
9 기둥정원
10 카페
11 숲놀이터
12 구불쉼터
13 쉐어존
14 물의정원
15 중앙광장
16 야외공연장
17 전망대
18 다리

I SOLU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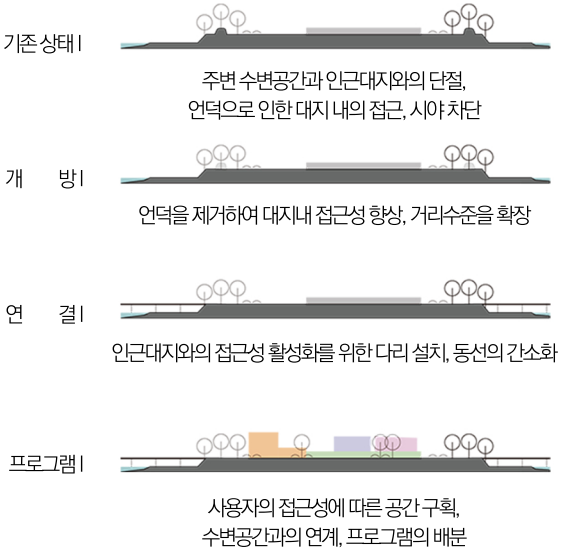
문화컨텐츠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불러모으고, 모인 이들은 자유로운소통과 교류를 통해 자생적인 문화적 환경을 조성

I CONCEPT



자연스러운 흐름 속의 만남, 도시속의 쉼터, 문화와 자연의 연결을 통한 문화공간, 지역거점의 형성

I FOCUS PLAN



I SITE ANALYSI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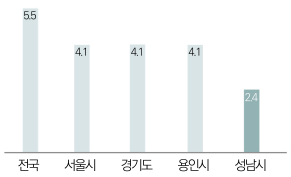
주변 현황

교통

녹지공간

성남시 문화시설 분포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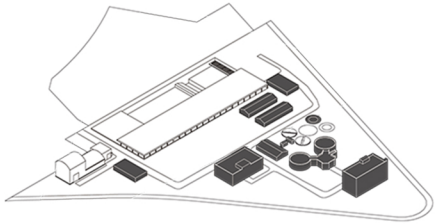
전국 문화시설 기반 현황 (10만)



인구에 상응하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며, 원도심과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분포

I RENOVATION PROCES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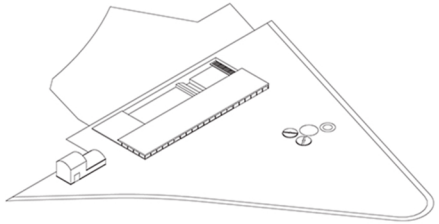
비 움



비움의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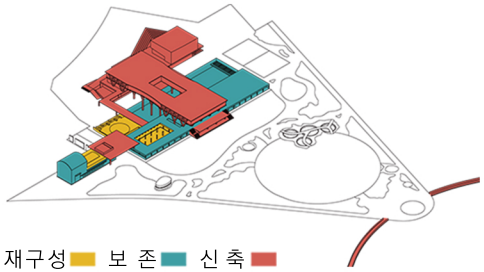
기존의 장소를 채우고 있던 인공물들을 비움의 대상으로 잡는다.
재생의 전략으로서 기존의 공간을 상대적 관점에서 수정한다.

기 억



장소적 기억의 보존은 온전하게 남겨진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.
기존에 남겨진 시설물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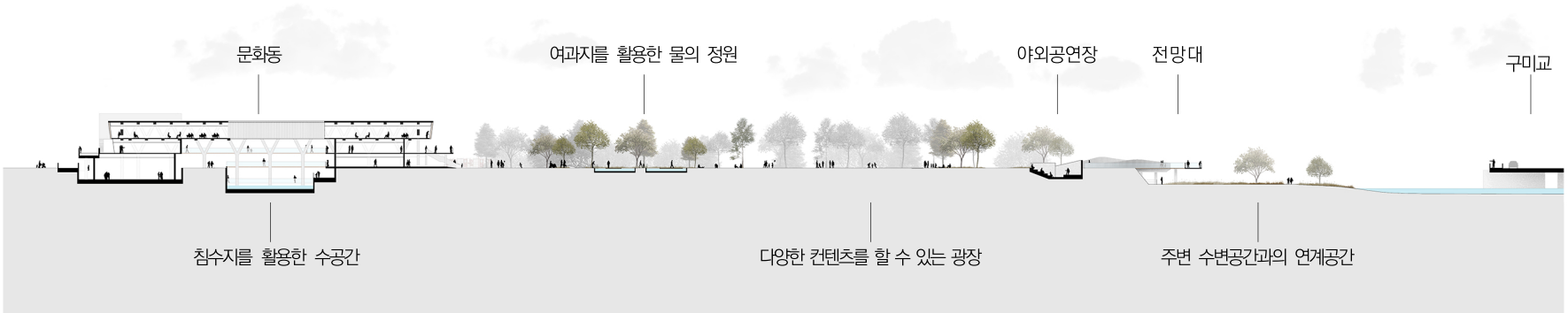
재구성 및 결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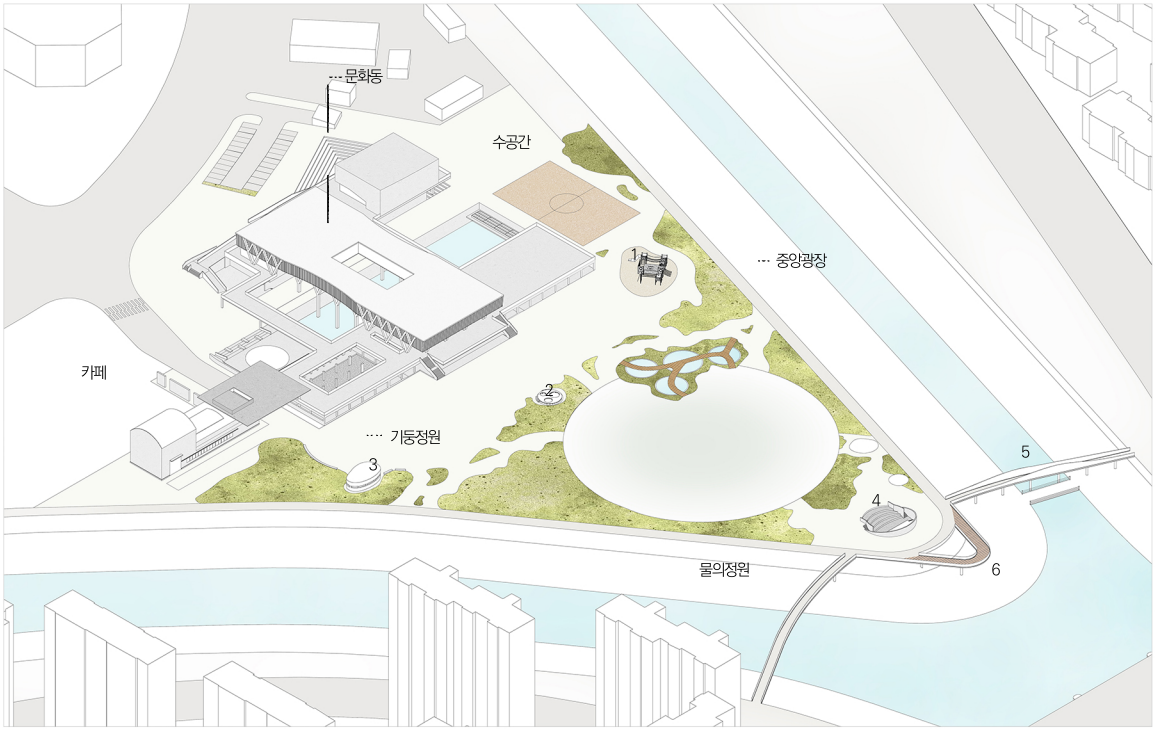


재구성 보 존 신 축

새로운 것은 장소를 재인식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고
과거의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관계를 형성한다.
지하와 지상, 내부와 외부의 입체적인 공간을 구성한다.

I SECTION PLAN





I 중앙광장

I 기둥정원

I PAVILION PLAN

1 숲놀이터

2 구불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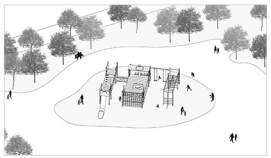
3 쉐어존

4 야외공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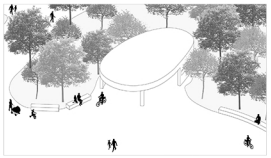
5 다리

6 전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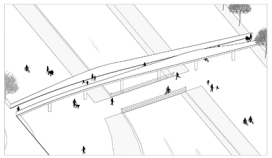
1I



3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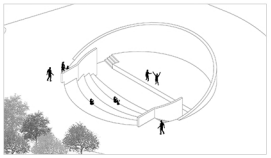


5I



2I

4I



6I

I 물의정원